

“3ha 미역·다시마 양식...건강찾고 무인도 살아보기 실현”



바다에서 희망 찾는 사람들

‘버킷 리스트(Bucket list)’를 이루는 이는 몇이나 될까. 나이 선 되기 전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다해본 사람이 있다.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인 ‘무인도에서 살아보기’를 이룬 박근범(49·사진) 씨다. 그는 무인도로 귀어해 미역·다시마 양식에 성공했다.

경주에서 현대자동차 품질관리부에 다니던 그는 컷바퀴 같은 일상에 무기력을 느꼈다. 해뜨기 전 새벽부터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귀가하는 직장인 박 씨에게 아무런 보람을 주지 못했다. 결혼 3년차에 박 씨는 아내 이선미(48)씨에게 갑작 선언을 했다. 청년시절부터 꿈꿨던 버킷 리스트를 이루겠다고 했다. 첫 번째는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두 번째는 ‘택시 운전사’가 되는 것이었다. 원래는 노년에 이루고자 했던 소망이었지만 순서를 앞당겨 개인택시를 운전했다. 그 뒤 비로소 박 씨는 버킷 리스트의 마지막 목록인 무인도에서 살아보기에 돌입할 수 있었다.

박 씨가 꿈꾸는 무인도는 나름의 조건이 있었다. 첫째가 1만평(약 3만3000㎡)을 넘지 않는 것이었다.

‘버킷리스트’ 실현 완도 귀어 박근범씨

소랑도 주민들에게 양식기술 배워
아직도 다시마 건조 작업 애먹어
이장·어촌계장 맡아 굶은일 도맡아
교통 불편하지만 섬생활 만끽

다. 낚시가 취미인 그는 고기가 잘 잡히는 주요 자리를 걸어서 옮겨갈 정도로 작은 규모의 섬을 찾고 있었다.

전국의 섬들을 찾아 다닌 끝에 완도 금일도 남쪽에 자리 잡은 ‘부도(釜島)’를 찾아냈다. 부도는 7만평 규모지만 1만평 남짓한 크기의 섬이 떨어져 나와 있어 박 씨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 완도군에서 귀어 지원에 힘쓰는 솔깃한 정보를 접하기도 해서 박 씨는 망설임 없이 집을 썼다.

2011년 귀어할 당시 박 씨는 앓고 있는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몸이 성할 때 귀어에 대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앞둔 딸이 눈에 밝혔다. 가족과 오랜 논의 끝에 딸은 도시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박 씨 부부만 부도에 터전을 잡았다.

원래 주민이 이사를 가고 비운 집에 박 씨 부부가 살면서 이들은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섬’에 남겨졌다. 부도로 가는 길은 녹록치 않은 편이다. 광주에서 쉬지 않고 차와 배편을 통해 가면 3시간 가량 걸린다. 완도에 도달하면 당목항에서 배를 타고 일정한항으로 들어간 뒤,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 소랑도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랑도에서는 개인 배를 몰아 바다를 건너면 그제야 부도로 갈 수 있다. 일 년에 두 번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하는 박 씨 부부에게 물으니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박 씨는 “한번 밖에 나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된다”면서 “날을 신중히 골라서 생필품과 필요한 자재를 사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왜 불편한 삶을 자처하느냐는 물음에 박 씨는 “한 번 살아보라”고 답한다. 바다 물결 따라 섬 곳곳을 누비며 낚시를 하는 재미는 도시의 어떤 활동과도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그는 단언한다. 심각한 병원에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간 섬에서 그는 건강을 되찾았다. 점차 차도가 보여 박 씨는 이제 함양제를 먹지 않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지내는 아내와의 생활도 큰 즐거움이 됐다.

박 씨는 귀어하고 나서 2년 간 섬 생활을 오롯이



즐겼다. 본격적인 귀어 준비를 하며, 그는 소랑도 주민들에게 어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다. 완도의 대표 수산물인 다시마와 미역을 양식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경험했다. 주민들로부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박 씨는

2013년 다시마 양식을 시작했다. 귀어 초보에게 양식 일은 가시밭길이었다.

특히 그는 다시마를 건조하는 작업에 애를 먹었다. 새벽부터 일해드 서툰 탓에 동이 뜨고 한참 뒤까지 다시마를 널 수밖에 없었다. 또 다시마를 걷는데도 꼬박 4-5시간이 걸렸다.

현재 3ha 규모의 다시마 양식장을 운영하는 그는 아직도 양식이 어렵다고 말했다. 수월한 양식 작업을 위해 그는 선착장이나 다시마 건조장과 같은 기반 시설 마련이 절실하다. 부도에는 선착장이 없어 태풍이 불 때는 배를 소랑도에 옮겨 정박한다. 생활 조건도 여의치 않다. 박 씨 부부는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쓰고 물을 끌어올려 마시고 있다.

무인도에 살고 있는 박 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장’과 ‘어촌계장’을 맡고 있다. 부도는 이웃섬인 섬도와 묶여져 섬부리에 속해 있다. 박 씨는 47구가 살고 있는 섬도와 부도의 갖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박 씨는 부도에 마을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 박 씨의 지인들이 그의 섬 생활을 보고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고즈넉하고 건강한 섬 생활을 함께할 이웃을 찾고 있다. 박 씨는 “지인들에게 이따금 섬 체험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이웃이 생기면 귀어를 하면서 얻은 배움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지원 서비스 대행 안내창구 개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는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일환으로 오는 6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기 및 창작지원금 안내 등 예술인 복지 지원 서비스를 대행할 안내 창구를 개설한다.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은 예술인이 국가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사회안정 전망 사각지대 및 불공정 관행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실태가 지속되고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설하게 된 예술인 복지지원창구는 ‘예술인활동증명’을 위한 등록업무

지원 등 예술 복지사업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서 우선 재단은 1차로 예술인활동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며, 접수방법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icf.or.kr>)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재단(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정책연구교류팀)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다. 문의 062-670-7436.

조선행 SW융합교육원은 최근 서울 간 ‘제16회 조선행대학교 장미축제’ 행사장에서 ‘로봇과 함께하는 SW 한마당’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조선행 컴퓨터공학과 39명의 학생들은 축제 방문객들에게 가상현실(VR) 체험과 레고 마인드 스톰 등 로봇을 통한 소프트웨어(SW)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조선행 SW융합교육원

조영주 담당교수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SW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부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곧 배우게 될 SW교육을 미리 알아보고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미축제서 ‘로봇과 함께하는 SW 한마당’ 체험 부스 운영



조영주 담당교수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SW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부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곧 배우게 될 SW교육을 미리 알아보고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동부경찰, 세계인의 날 범죄피해자보호 캠페인



광주동부경찰(서장 김재석)은 ‘제11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7일 외국인과 일반시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안내하고 피해상담도 진행하는 등 피해자보호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주동부경찰 제공>

광주비아농협 노인가구 6곳 청소봉사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흥식)은 최근 고향주부모임(회장 양희정) 회원 20여 명과 함께 관내 노인가구 6곳을 방문해 청소봉사를 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주광주중국총영사관·전남대 ‘대학생 중국어말하기’



주광주중국총영사관(총영사 손시안위 孫顯宇)과 전남대학교는 공동으로 지난 27일 전남대에서 ‘광주·전남 한국대학생 중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동래정씨광주전남종친회 정기총회=31일(목) 오전 11시 광주무등고시학원 301호(동구 대의동 8-1) 정영선 010-3609-2523.

일림

▲2018년광주오카리나합주단 제2회 정기연주회=6월 7일(목)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10-3606-0230.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

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을건강자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

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모집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헌정 합창단 모집. 062-675-5955.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통동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설천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분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분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 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 모집=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교육,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번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장애인 문화회 회원=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각화문화회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부음

▲김영희씨 별세 김아름·주리씨 모친상=발인 30일(수) 조선행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분향소 062-231-8908.